

'청년 문화도시' 활성화 맞손

익산대학교위원회 발족... 인구·입학정원 감소 극복 노력 각종 프로그램 추진... 청년이 살고 싶은 환경 조성

익산시와 원광대학교가 대학 문화 활성화로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문화 도시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시는 청년과 문화를 잇는 각종 사업 추진으로 대학로를 청년문화거리로 조성하고 청년 인구유입 효과를 거둘 방침이다.

익산시와 원광대학교, 익산문화도시 지원센터는 16일 대학로의 인디클럽인 '울대뮤직'에서 원광대 앞 대학로를 지역의 대표적인 청년문화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협약을 맺고 익산대학교

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박맹수 원광대학교 총장, 익산시의 회 박종대 의원, 대학로에서 문화공간을 운영하는 지역주민, 원광대 LINC+ 지역협력센터, 총학생회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원광대 건축공학과 노준석 교수가 '시민 개방형 캠퍼스와 원광대학교 마스터플랜 전략을, 디지털콘텐츠학과 원도연 교수가 '익산 대학교위원회'의 산을 부각해 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

고 정현을 시장이 좌장을 맡아 시민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 익산시와 원광대는 궁극적으로 익산시가 대학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뜻을 함께했다.

협약에 따라 익산시는 도시쇠퇴와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대학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지역과 도시에 매력을 느끼고 궁극적으로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원광대는 대학로 거리를 학기 중에만 반짝하는 소비 거리가 아니라 청년 문화가 번성하는 문화거리로 만들어 대학의 명성과 매력을 높이겠다는 장기 플랜을 세우기로 했다.

/김재훈기자



군산대학교는 16일 대학본부에서 (주)풍림파마텍과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선순환적 협력' 체계 구축

군산대 · 풍림파마텍, 상호협력 협약 체결

군산대학교는 16일 대학본부에서 (주)풍림파마텍과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광병선 군산대 총장, 양현호 대외협력본부장, 김영철 산학협력단장, 정근목 취업지원과장, (주)풍림파마텍 조미희 부사장, 김대비드 경영전략부 운영팀장이 참석했다.

이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의료기기 기술 연구개발 분야 교류 및 교육, 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등에 있어 상호 협력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과 관련해 광병선 총장은 "군산대와 풍림파마텍이 맞손을 잡고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데 좋은 성과를 내면서, 양 기관이 가진 역량을 증대해 더 많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조미희 부사장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지역대학과 기업의 연계가 중

요함을 많이 느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군산대학교로부터 기술지원, R&D지원, 기업 내 직원 재교육 지원을 받아 학생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공하는 선순환적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풍림 파마텍은 의료용구, 화학기기, 의료용 주사기 등을 생산하는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글로벌 선도기업 인증, 전라북도 선도기업인증을 받았고, 특히 2021년 최소 잔량 백신 주사기를 개발하여 개발팀이 "이달의 한국관 뉴딜" 제1호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달의 한국관 뉴딜"은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여 혁신과 도전정신을 담아낸 사례를 발굴 및 확산하기 위해 시상하는 제도이다.

/군산=남원봉 기자

군산시 · 군산시의사회, 효율적 예방접종 업무협약

백신 공급 일정 · 물량 맞춰

예방접종... 집단면역체계 확보

군산시는 군산시의사회와 16일 예방접종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군산시의사회 이창수 의사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민간 의료인력 지원, 시민의 접종률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그 외 예방접종 관련 협력이 필요한 전반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의료인력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간 업무 협조와 지원을 통해 원활한 운영과 시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시와 의사회는 정부의 백신 공급 일정 및 물량에 맞춰 차질



군산시는 군산시의사회와 16일 예방접종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없이 예방접종을 시행해 집단면역체계를 확보할 예정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에 군산시의사회가 적극적으로 힘을 모

아 협력해줘 감사드린다"며 "유기적인 협력체제로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으로 군산시민의 집단면역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고병만기자

정현을 시장, 기재부 설득 '국가예산 확보'

정현을 시장이 내년도 국가예산 최대 규모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순회하며 목표치 달성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16일 기획재정부의 예산실장과 예산총괄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관련 예산과장 등 정부 예산의 핵심 간부를 찾아 지역 경제 상황과 사업 당위성을 설명하고 주요 현안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정 시장은 기획재정부 예산실

장, 예산총괄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과의 면담에서 글로벌 식품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사업의 필요성과 예산반영에 대한 당부와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개설사업 ▲오산 신지~영만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국도27호선 서수~평강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대규모 SOC사업에 대해서도 예산보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이어 관련 예산과장을 만나 ▲동물

질병치료제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 ▲익산점 방문객센터 조성 ▲익산 내비위성당 성지문화체험관 건립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용두산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이달 말 마무리되는 기획재정부 1차 심의 기간 동안 미온적인 사업들에 대해 논리 보강과 타당성 강화를 통한 삭감방지 대책을 세우고, 미반영 사업과 과소반영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해 부활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등 2차 심의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김재훈 기자

군산 조촌동, 거동불편 10가구에 세탁서비스

조촌동이 거동불편 가구에 이불 빨래 등을 전달하는 '물린 UP! 복지 UP! 행복 빨래방' 사업을 추진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 조촌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왕영호)가 16일 관내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 등 거동불편 10가구를 대상으로 물린 UP! 복지 UP! 행복 빨래방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대상 가구의 세탁물을 직접 수거·빨래·건조·배달하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안부 확인을 통해 코로나 19로 소외되기 쉬운 거동불편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서적 지지를 제공했다. 이



번사업은 주민이 주민을 돕는 복지를 직접 실시하며 자발적인 자원봉사 실현에 의미가 있다. /군산=남원봉 기자

지역 소식통

박효성 신임 익산시 비서실장 임명



정현을 익산시장은 신임비서실장에 박효성(59)씨를 임명했다.

신임 박효성 비서실장은 익산 합열출신으로 원광고등학교와 전주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사회통합위원회 위원, 전라북도 생활체육회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박 실장은 "정현을 시장을 잘 보필하는 것이 시민을 섬기는 것이라 생각하고 소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기자

군산시, 시내 주요간선로 재포장 본격 시행

군산시가 시내 주요간선도로 중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차량운행에 불편함을 주는 구간에 대한 재포장을 본격 시행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음면등 조사 및 시 자체적으로 주요간선 도로 중 재포장이 필요한 노후 불량 도로에 대해 구간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구간 조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전체 구간에 대한 재 정비 대신 정비가 시급한 구간의 우선순위 선정에 위해 추진됐다.

조사 대상은 관내 주요간선도로 99km(시내 4차선 이상 농촌 2차선 이상) 중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차량 운행에 불편함을 주는 구간을 집중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15km 구간을 13억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말까지 정비완료 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단지 내 대형차량으로 인한 상습적인 도로 파손 구간에 대해서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포장층에 대한 전면 재포장 공사를 실시 할 계획이어서 원활한 물류 수송이 기대된다.

/군산=한원봉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